

연중 제4주일

기도서 P. 339 C해

제1독서(예 레 1,4-5, 17-19)

제2독서(고린전 12, 31-13. 13)

복 음(루 가 4, 21-30)

숨 정 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불 희
주 간	조 성 성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 감 론



현실의 기적

김 성 진 신부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 특히 현대의 가난한 사람과 고통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도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번뇌인 것이다. (사목현장 1항)”

생활에 쫓달리다 비판에 잠긴 부부가 자포자기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 버린 비통한 일이나, 달려오는 열차에 들이받쳐 절명할 자식을 안고 슬픔에 잠긴 부모들의 가슴에 모든 과실이 피해자에게만 있다는 판결로 또 하나의 아픔을 안겨준 슬픈 소식이나,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삶의 마지막 발돋움을 하며 자립하여 살아 보겠다는 음성 나환자들의 아우성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린 평복 없고 매정한 축산파동이나, 원유인상, 환율인상, 금리인상등 계속 몰아치는 파도에 조그만 조각배들이 항하는 시련들은 모든이의 아픔이요, 우리의 슬픔이다. 우리는 이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고, 이들이 당하는 멸시와 냉대를 극복할 수 없다. 끝 신자들의 단체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을 찾는 이들의 마음은 항상 가난하고, 억압받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 천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홀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분이 가신 길을 뒤따르는 우리가 대신해서 걸머지고 가야 한다. 자신의 십자가 뿐만이 아니고 내 주위의 약한 형제들의 십자가까지도 지고 갈 수 있는 도량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며, 그분의 사명이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우리의 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쫓달리다 해도 우리네 얼굴에서 웃음을 빼앗아 갈 수 없다. 생활의 어려움이 삶의 희망을 꺾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어진 삶이기 때문이다. 주어진 삶이기에 우리는 자기 앞에 어려운 일이 펼쳐진다 해도 그에 좌절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 일수록 머리를 숙이고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값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쓰레기 치우는 청소부여 지나지 않을지라도 그의 가슴속에는 기쁨이 있다. 복직대는 시장 한구석 외진 자리에 앉아 손을 비비며 밀고 있는 노파의 눈망울이 마냥 청순하기만 하다. 불구의 몸을 이끌고 다니면서도 저수나 원망은 커녕 오히려 감사의 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형제가 있다. 그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누추한 자리에 들지만, 마음만은 무한한 기쁨으로 가득차 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원망하지 않고, 가난하지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의 아픔을 나눌 줄 안다. 주님은 자기와 같이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심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은 오히려 그들의 하느님과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준다. 고통을 은총으로 변화시키는 현대의 기적을 거리낌없이 생활로서 보여주는 그들이야말로 진리의 사도요, 평화의 사도이다. 이땅에 하느님 왕국을 건설하는 일꾼들이다. 우리는 신앙의 기쁨을 이들 안에서 발견할 줄 알아야겠다. 세상의 기쁨, 번뇌, 고통 모두가 우리의 것이요, 주께서 주시는 은총인 것들...



제자들은

나를 손가락질 해다오!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는 오늘에 있어서 나의 실정 은 매우 착잡합니다. 온 세상이 民主化를 위한 정치발전 작업에 들떠 있지만, 나는 그것보다도 나 자신이라는 인간이 싫어졌고 나의 처세에 구토를 느낍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갖은 苦難을 겪은 사람들이 이제 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참을때에, 그들이 지조를 지킬때에, 그들이 殉教하고자 할 때에 나는 도망을 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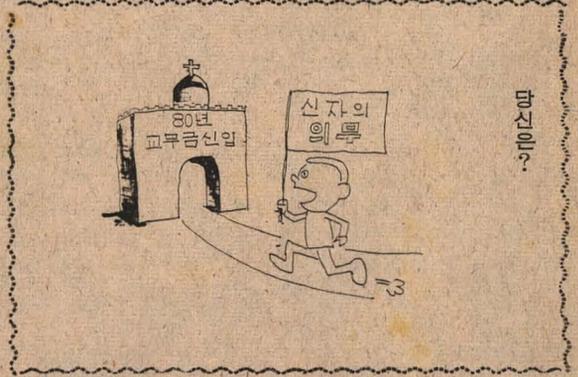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이 없을때, 나는 입맛이 없다고 아내가 정성껏 마련해준 음식을 타박하고, 유명한 음식점을 찾아 식도락을 즐겼고, 많은 사람이 생계비도 못되는 보수를 받고 허덕일때, 나는 관공비가 모자라서 일류 요정에 나가 미인의 손을 자주 못만져보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했고, 많은 사람이 버스도 제대로 못타고 교통지옥에 시달릴때 나는 고급 승용차의 폭신한 쿠션에 앉아서 그 교통지옥을 영화처럼 감상했습니다.

나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오래 안 일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욕망은 하필 오늘의 나의 철학이 아니라 일제시대부터 내가 만고불멸의 철학으로 알고 내려온 나의 확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이 확신을 저주합니다. 나는 4·19이후에 그때까지의 非교육자적인 처신을 일시 후회했었습니다. 다시는 역사와 민족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고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나는 다시 曲學阿世의 길을 걸었습니다. —(朝鮮日報 1. 26주 3면)

이 대학총장의 고백은 마치 예수를 세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의 통곡이며, 稅吏의 기도처럼 들린다.

진정한 화해는 잘못에 대한 참회와 고백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적 화해도 한가지다.

숨 정 이 산책



“누군데 이렇게 추운데서 서 있오”

박 창 순

(민음은 「웨침」이 아닌줄 알면서, 또 평소의 신앙생활에 소홀한 가운데서 이런 말씀드리기에 매우 부끄럽습니다.)

작년 성탄절은 직장일때문에 천안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예정했던 계획들이 빗나가고, 또 천안에는 처음길 이어서 여간 애를 먹은게 아깝니다. 2천년전의 등방박사들처럼 예수 아기 태어나실 성전을 찾아 나섰으나 공해로 더럽혀진 하늘에선 옛날의 그 길잡이 별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찾아낸 성당에 들어서자 제일 먼저 말없이 반겨주신 분은 성모 마리아이셨습니다. 누구 하나 아는 사람이 없으니 내쪽에서도 그냥 서 있을 뿐이고, 그들도 “소 랍 쳐다보듯” 할 뿐이었습니다. 퍼뜩 머리에 와 닿는 생각-“천주교 신자들은 차디차”-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물론 나에게도 맞은 있습니다. 내 소개를 하며 말을 건넌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기 까.)

한참을 찬바람 속에서 구경(?) 하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쪼그라들어 탄력도 없는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으시며 말을 건네셨습니다. “누군데 이렇게 추운데서 서 있오.”-얼마나 포근했던지 모릅니다. 내 친어머니 같았고, 할머니 같았습니다.

할머니를 따라 장당에 들어서니, 그곳에서는 <불우이웃 돕기 1일 찾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리 교사들은 바빠 움직였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차가 내게도 날라졌습니다. 깜짝 놀란 나에게 “멀리서 오신 분에게 매점이 소홀합니다. 미안합니다. 선물이니 기쁘게 드세요.” 내가 맞본 따뜻한 순간이어선지는 몰라도, 이야말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따뜻한 정을 받고 보니 가만히 있을 수 만도 없었습니다. 나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도 불우이웃에게 선물을 주고 왔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그냥 가볍기만 했습니다.

우리 생활주변에서 그냥 지나쳐 버리기 쉬운 몇마디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버려진 돌이 모퉁이돌이 된다는 성경말씀처럼, 간단한 이 몇마디는 우리 사회를 밝고 아름답게 하는 밑물이 됩니다. 피는 장사를 어떻게 당합니까? 웃는낮에 어떻게 침을 뱉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공동체, 형제애, 일치, 나눔...」 따위의 말들이 자주 쓰여집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러한 낱말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바탕이 되어 있지 못한 듯 싶습니다. 극단의 이기주의로 치달는 오늘의 현실을 생각할 때,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말로만이 아닌 참으로 형제애를 느끼며, 하나로 일치하여, 나누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인사를 나누시다. “형제를 저희에게 보내주신 그분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립니다”라는 인사가 나누어져야 합니다. (남원본당)

□ 단상 ③

맑은 하늘에 흰 새 한 마리

최 규 환(알벨도)

고요한 밤이란 말은 전혀 아무 소리가 없는 밤을 의미한다.

하늘이 맑다함은 푸른 하늘에 아무런 티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혀 아무 소리가 없을때, 우리는 고요함도 느끼지 못하고, 푸른 하늘에 전혀 티가 없을때 맑음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하여 순수한 유는 무이다.

귀뚜라미 우는 고요한 밤, 귀뚜라미의 작은 울음소리는 고요함을 알려주고, 고요한 가운데 귀뚜라미의 작은 울음소리는 큰 소리인 것이다.

티없는 맑은 하늘에 흰새 한 마리, 한 점의 흰구름은 맑은 하늘을 알려주고, 흰새 한 마리와 한 점의 흰구름은 큰 티로 나타난다.

“水至清則無魚하고 人至察則無徒”라는 말이 있다. (신재인 본당 사도회장)

□ 좋은 책은 신앙의 원동력

◇ 목 자 유 갑

이종홍 신부 외 102인 공저 (가톨릭시보사) 1,500원
신 4,6판 213면 반양장

가톨릭시보 목자유감란에 실려 전국 애독자의 뜨거운 감재를 받았던 글들을 한데 모아 엮은 사목 체험담. 인간으로서의 고독과 고뇌속에서도 자신을 채찍질하며 모 든이를 위한 모든 것이 되고자 피나는 노력으로 살고 있는 사제들의 애환과 보람이 담겨 있다.

◇ 200주년 성서

요엘, 아모스, 하개, 말라기

서인석 역주 (성바오로) 700원 4,6판 125면 반양장
한국 천주교 전래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서강대 학교 신학연구소에서 발간한 이 구약성서는 우리말 어법이 허락하는 한 원전에 충실을 기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또한 각 서책의 역사적 배경, 문학구조, 신학적 메시지를 밝히는 해제와 풍부한 주석을 실어 성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 생화·각종 화분·신부부케 전문·제대장식
유명장사 직접지도 꽃꽂이 회원모집

◇ 교우 여러분께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0921

범 띠또(떡백)·이 마리아

內的 刷新을 위한 지도자 교육 마무리

—1월 피정에 불참자의 빠짐없는 참석 요망대

교구 설정 50주년을 앞두고 <내적 쇄신>의 바탕을 다지기 위해, 지난 1월에 5차례에 걸친 피정을 통해, 239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영신을 살찌우고 지도자 역량을 기르기에 노력한 바 있다. 이 피정 이외에도 2차례에 걸친 꾸르실로는 77명의 새로운 꾸르실로 형제자매를 났으며, 본당 사무장과 재산관리위원들을 위한 교육도 1차 있어서 47명이 수료했다.

앞으로도 2월에도 피정과 교육이 계속된다. 1월중에 참석 못한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소기의 성과가 알차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혹시라도 잊고 있을까해서 지난번의 참가실적도 공개한다. 크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 계획... □ 신부·수녀 신학 연수회...2월 5~6일

□ 신부·수녀 농촌 사목 세미나...2월 7~8일

□ 공소 지도자 피정...2월 10~11일, ※ 5·6지구 공소 지도자와 1월 피정에 불참한 공소 지도자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 본당 수녀·전교사 피정...2월 13~14일

□ 사도회 임원 피정...2월 22~23일, ※ 1월 피정에 불참한 사도회 회장단과 사도회 임원(교문, 감사, 사무장 포함)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 성가 지도자 교육...2월 25~26일, ※ 성가 지도자, 반주자, 성가 지도수녀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 본당 부녀회장 피정...2월 28~29일, ※ 부녀회장 및 대표 2명씩

※ 참가실적(1월 29일까지의 실적)

□ 본당 사도회장단 피정...39개 본당중 27개 본당에서 43명 참가(3명...김제, 2명...원평, 수류, 대야, 용안, 삼례, 주현동, 창인동, 서학동, 중앙, 숲정리, 파티마, 상관, 장계, 진안, 1명...부안, 신태인, 정읍, 월명동, 오룡동, 화산, 황등, 금산, 남원, 무주, 임실, 한들)

□ 사도회 임원 피정...6개 본당에서 12명 참가(4명...김제, 원평, 1명...둔물동, 금산, 순창, 한들)

□ 공소 지도자 피정...205개 공소중 79개 공소에서 107명 참가(김제 8/10-용지, 광활, 만경, 와룡, 봉월, 신암, 백자동, 오갯, 부안 5/11-청호, 마포, 등룡, 덕림, 만석, 원평 4/4-금산, 황골, 쌍용, 텃골, 수류 5/5-울치, 시목, 양생, 우음, 구장, 신태인 7/12-용암, 태인, 거산, 동막, 능교, 진흥, 화봉, 정읍 8/10-신평, 죽림, 신성, 노송, 삼소, 한교, 노송, 등천, 회룡, 팔마 2/3-개정, 수산, 오룡동 1/1-어은, 월명동 1/2...신창, 대야 2/4-임피, 옥화, 용안 5/7-교항, 두봉, 성당, 신은, 재성, 할열 1/7-상지, 화산 4/5-금지, 신용, 신덕, 관산, 고산 6/20-음수, 되재, 소향, 백석, 천호, 경천, 삼례 1/4-익산, 여산 2/9-황하, 성치, 주현동 3/4-동산, 시전, 부용, 창인동 3/4-팔봉, 영등, 약촌, 노송동 2/5-다리, 신교, 덕진 2/4-전당, 미산, 서학동 2/3-마음, 광곡, 파티마 1/1-물꼭지, 무주 2/7-월천, 기곡, 함들 1/10-오암)

요심이 (340) 김병오



□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

송옥의 상실

최 춘 자(로사리아)

(이 시계점 열)

전화 ③ 6219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영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로얄백화점 내
(삼화약국 옆)

백양 메리야스

직 매 점

채 순심(아네스)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발식, 보로

문 화 양 행

오 중 원(아오스딩)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③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시보당 금방

(금·은·보석·작곡 시계)
주 이 참 수(바오로)

전주 남문영

전화 ② 8188 (자 ③0369)

가톨릭 방송안내 및 원고모집

1. 사색의 오솔길

- ① 방송국 및 방송시간
서해방송 밤12시 15분
- ② 담당: 나궁렬 신부
- ③ 원고내용: 젊은이들의 생활교향과 그들에게 하고싶은 이야기
원고지 5매
- ④ 연락처: 전주 노송동성당

2. 생활종교

- ① 방송국 및 방송시간
서해방송 주일 아침 7시 40분
매 1회
- ② 담당: 김환철 부주교
- ③ 원고내용: 생활속에서 신앙체험
담, 원고지 12매
- ④ 연락처: 전주교구청

※ 방송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함.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신부·수녀님 신학성서 연수회 및 농촌사목 세미나...2월 5일(화) 오후 2시~8일(금) 가톨릭 센터에서
 2. 제 3차 공소(5·6지구) 지도자 피정...10일(일) 오후 2시~11일(월) 가톨릭 센터에서
 - ① 참가자...A. 5·6지구 해당 분당(남원, 상관, 순창, 임실, 금산, 무주, 장계, 장수, 진안, 한들) B. 1·2·3·4·7지구 공소지도자 피정시 불참자
 - ② 접수시간...10일 오후 1시30분~2시(※ 2시 정각에 시작)
 - ③ 1인당 참가비...전주시내(4천원), 군산·이리시내(3천5백원), 금산·무주·장계·장수·한들(2,500원) 순창·원평(2천원), 기타(3천원)
 3. 문화강좌...2월 9일(토) 오후 7시, 강사-김치수(외국어대학 교수), 주제-소설과 사회
 4. 제 7지구 학생회 임원개편...회장-김승태(함열), 부회장-소주형(금마)·서철화(화산), 총무-김정옥(함열)
 5. 제 5차 공소 교육일정(교구 공소사목 연구위원회 주관)...2월 11~12일 진흥리 공소(신배인), 등용리 공소(부안)
- 군인들을 위한 묵주 성급...전주 연초제조창 성화회원들(26,540원), 중앙 한일수 손가락묵주 17개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문	정	현
보좌	신부	성	태	수
보좌	신부	정	태	현
사도	회장	김	김	부

1. 프란치스코 3회: 오후 2시 강당
 2. 예비자 첫 교리: 2월 24일부터 사무실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례분과위원회 회의: 2월 3일(일) 공식미사 후 사무실
 4. 주일학교 개강: 2월 9일(토) 오후 3시
 5. 삼지회: 2월 11일 오후 6시로 연기
 6. 구정합동 위령미사: 16일 오전 6시30분, 오후 7시30분
 7. 병자방문: 매일 첫주 화, 수, 목요일
- 지난주 봉헌금: 367,291원

(노충동)

전화 ⑦7032

주임	신부	김	정	원
보좌	신부	나	공	열
사도	회장	박	춘	근

1. 애령회 정기총회: 오늘 공식미사 후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 자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성경 읽기 운동: 일년 주기로, 구약 1회, 신약 2회 읽기, 지난주-창세기 전체, 금주-마태복음 전체, 꼭 실천합니다
 4. 80년도 제 2차 성령세미나 개최: 18~23일까지 매일 오후 2시~4시,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접수하고 있습니다)
 5. 본당에 비품을 기증하신분: 유영철씨 오토바이 1대 기증, 정태에서-대형 솟대 2점, 송마올라씨-대형 꽃꽂이 2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6. 교육위원: 김성록, 박춘근, 이홍재, 유영철, 김정순, 양광식, 박메리수, 최정자, 김귀래, 김종표
- 지난주 봉헌금: 172,872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조	정	오
사도	회장	양	상	열

1. 예비자 교리: 2월 10일부터 시작, 일요일-일반부, 채벨라벳다 지도, 수요일 저녁~저녁인부, 조신부님 지도
 2. 구정합동 위령미사: 선영들을 위하여 빠지지 마시고 미사를 봉헌합니다
 3. 반석회 모임: 9일 저녁 7시 25세이상인 분당내 남자 형제, 의무입니다. 꼭 참석합니다
 4. 자리는 앞에서부터 앉습니다 반석회 회원들의 안내에 협조합니다
 5. 사도회 월례회의: 2월 10일 공식미사 후
 6. 전자오르간 기증: 2,500,000원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304,075원

(복자)

전화 ⑤5238

주임	신부	김	종	택
보좌	신부	박	성	팔
사도	회장	조	성	호

1. 구정합동 위령미사: 다음주(토) 16일 나누어드린 봉투에 뚜렷하게 기재하여 봉헌하세요
2. 성우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김용식형제 덕)
3. 사도회 고문: 천건, 유중소, 최용규, 박홍기, 최순석, 조영호, 염규철 분당발전에 적극 협조 바람

4. 학생회 월례회: 오늘 학생미사 후(강당에서)
- 지난주 봉헌금: 251,34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	병	환
사도	회장	한	현	수

1. 사도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있음
 2. 예비자교리: 공식미사 후 있음
 3. 반장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있음
 4. 가정방문: 3반-2월 5일(화)~6일(수) 양일간중, 4반-7일(목)~8일(금) 양일간중
 5. 수요기도회: 6일 오후 7시30분
 6. 대학생 모임: 2월 3일(일) 오후 2시30분까지 회의실로 모여주시기 바람
 7. 감사: 지난 신부님 이취임시 차를 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133,885원

(숲정이)

전화 ⑦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강	노

1. 사도회 월례회: 2월 3일 공식미사 후
 2. 유치원 개원식: 2월 4일
 3. 예비자 교리시간 안내 매주 화요일, 수요일 각 오후 7시30분
 4. 숲정이 신형 총회 예정: 2월 10일 공식미사 후
 5. 신축기금 내주신 분 윤석도(10만원), 김혜순(5만원), 강원모·김종환(각 20만원)
- 지난주 봉헌금: 198,125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병	엽
보좌	신부	김	기	수
사도	회장	유	유	석

1. 유아세례: 9시미사 후
 2. 어머니 성가대 정기총회 일시-2월 9일(토) 오전 10시30분, 장소-사제관 2층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 제279차 성자 공개 쉼 일시: 2월 3일(일) 오후 2시, 장소: 사제관 2층
 4. 2월 4일~9일까지는 아침미사 없고 저녁미사만 있습니다
 5. 사도회: 분과위원장 차장들 모임-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330,75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	회장	채	수	현

1. 레지오 연충친목회: 오늘 오후 1시30분
 2. 제 2대 학생 정기총회: 공식미사 후
 3. 중·고 학생미사: 매주일 오후 3시 중·고생은 학생미사에 참석해 주세요
 4. 지난주 나환자들을 위한 성금 감사합니다
 5. 사도회 월례회: 오늘 저녁미사 후
- 구라주일 헌금: 111,295원 어린이헌금: 3,991원 교무금: 76,900원